

진해 쓰레기매립장 “와! 환경공원 됐다”

쓰레기매립장과 조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집결된 경남 진해시 덕산동 일원 7만평이 친환경 공원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현재 자연에너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환경 과학공원 조성공사가 완공돼 각종 에너지시설은 물론 이공영양장과 인라인스케이팅장이 들어섰다.



경남 진해시 덕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위에 건립된 에너지 전시관에서 초등학교생들이 자연에너지 생산과정을 배우고 있다. 진해시 제공

진해시는 덕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 조성중인 에너지 환경 과학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6월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이 공원 조성 사업에는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곳에는 하루 532톤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 5개소와 1만 3000㎡를 생산하는 태양열 온수시설, 태양열 집열시설, 에너지전시관이 들어섰고 태양광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도 시범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곳에는 신에너지의 생산과정을 보려는 학생들의 견학행렬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진해시는 오는 2007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매립으로 육지가 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소죽도에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 야경을 발원 조명시설 전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죽도에는 환경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저시설과 해양 레포츠 체험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 공원은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는 인라인스케이팅장이 조성돼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라인스케이팅장은 2000평의 부지에 길이 76m 폭 43m의 트랙과 조명시설을 갖춰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공원 산책을 나온 서상우(55)씨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며 “그러나 에너지 시설과 인라인스

덕산동 7만평에 공연장·인라인스케이팅장 태양광 발전시설·에너지 전시관도 건립

케이팅장, 공연장이 잘 조성돼 지금은 거의 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또 2750명의 부지에 사면비 45억원이 투입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57평 규모의 야외공연장이 최근 완공됐다. 1134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은 본관과 무대관, 별관 등 3개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야외공연장은 전시실과 연습실을 갖추고 있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공연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골프대중화를 위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 중이다. 플라스틱 볼을 사용하는 파크골프장은 정규코스에 비해 거리가 짧지만 페어웨이의 넓기, 러프가 있어 누구나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9월 말쯤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에너지전시관 전경

진해시 관계자는 “쓰레기 조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친환경 공원으로 꾸며져 많은 학교교과 등 교육테마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원 내 각종 에너지 시설로 친환경 도시의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데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돼 앞으로 진해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해=박영욱기자 buntle@munhwa.com

울산, 여권발급 3~5일로 단축

이달부터 해외출장 기업인·장애인 등은 3일내로

달부터 2대, 여권발급과 관공 1대씩을 각각 추가로 도입했다.

울산시는 여권 발급기간이 3-5일로 단축했다. 이달부터 일반인의 여권 발급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해외출장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는 3일 이내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인원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발급기간을 기존 8일(법정기간)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수출상업이나 해외공장 출장 등을 위해 출국하려는 기업체 임직원과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민원봉사실 여권발급팀의 인원을 정규직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여권접수

달부터 여권의 조기발급은 물론 발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 인근 경남 양산과 경북 경주, 포항 등지의 여권발급 민원인이 울산시청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여권발급 예약 인터넷 접수제와 토요일 여권접수 및 교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곽시영기자 sywak@



가을햇방 '헴스럼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산청농협 범수메장에서 햇방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산청군 농협에서는 지난 1일부터 햇방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상품 기준으로 1kg당 1500원에 수매되고 있다. 산청군 제공

부산 화장률 2년째 전국 '으뜸'

지난해 74.8%로... 평균치보다 22.2%p나 높아

부산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망통계 결과 및 보건복지부 화장률 현황에서 부산의 화장률은 74.8%로 전국평균 52.6%보다 22.2%포인트나 높아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부산은 2004년에도 71.9%로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의 화장률은 2001년 62.2%(전국 38.5%), 2002년 66.1%(42.6%), 2003년 68.1%

(46.3%), 2004년 71.9%(49.2%) 등 매년 전국 평균을 20% 포인트 이상 훨씬 앞서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화장률이 높은 것은 일단 매장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데다 부산시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기존 매장 위주에서 화장·납골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캠페인을 벌였고 시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95년 시립 화장 및 납골시설인 영락공원이 문을 연 이후 선진전례문화에 대한 시

민들의 관심이 높아 화장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묘지 부족과 장례비 부담 등으로 인해 화장률이 계속 높아져 2010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영락공원이 내년 말쯤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7만8000여평의 부지에 10만위를 인제할 수 있는 납골당 등을 갖춘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김기경기자 ant73@

외국인기업에 임대료 절반 미산무역지역 투자방안 마련

외국인 전용공간인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투자 촉진을 위해 임대료

■ 외국인 전용공간인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투자 촉진을 위해 임대료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7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임대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투자기업의 생산 실적 비교제 등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단지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또 단지 재정비를 통한 무역지역 활성화와 위해 제1, 2공구 전체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무역지역을 통과하는 해안도로 개통에 대비해 2공구 정문을 철거하기로 했다. 마산=백영욱기자

'예술' 담은 유치장

대구북부북 4곳, 벽화로 새단장

대구 북부경찰서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의 유치장 벽면을 정감있는 그림으로 수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경찰서내 4개 유치장의 벽면을 서로 다른 4개의 벽화로 단장해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만 있었던 환경을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유치장내 벽화는 각각 가로 7m, 세로 3m 크기로 소를 모는 목동,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가을뜰, 등대, 소나무, 학 등 다양한 풍경을 담고 있다. 벽화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전·외경들이 15일 동안 작업한 끝에 완성됐다. 벽정형 북부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사막한 유치장 벽을 그림으로 단장했다”고 말했다. 대구=박영욱기자 kobbia@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외경들이 등대를 주제로 한 벽화를 그리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제공